

[목회자 모임]
“나의 영원한 처소”

2019. 8. 16. 이현래 목사

지난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알아진 것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육체는 덩어리라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육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악이고 정욕 덩어리라고 해서 완전히 육체를 배격하는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가끔 있다. 그런데 막상 육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신 것이 귀중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전에 내가 말씀을 드릴 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달아났다고 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를 실제로 만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증거를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어리버리한 상태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다. 그런데 오순절에 또 결정적인 사건이 났다. 그것도 역시 하나의 증거였다.

그런데 그 증거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다고 베드로가 외치기 시작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증거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증거이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본 것은 증거밖에 못 봤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렇게 말했는가? 자기는 예수와의 관계가 너무 생생한 것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와 생생한 관계가 없다. 베드로의 말만 듣고 보면 베드로는 알지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로마서 6장에 가면 바울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한다. 도저히 그것이 납득이 안 간다. 함께 있는 적도 없고 함께 죽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함께 죽었다고 하는가? 그래서 그 말이 아주 애매하다

그런데다가 7장에 가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롬7:21) 이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한다. 6장에서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해놓고, 7장에 가서는 왜 그 말을 하는가? 그것은 비록 예수와 함께 죽었어도 옛사람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이다.

그런데 8장에 가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8:1)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시작한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함께 죽은 일도 없고 그 안에 내가 있는 일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이런 말이 안 나오겠는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돌아와 보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고전1:30)라고 말한다. 벌써 ‘있고’라고 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본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보면 알게 된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다. 미리 다 가버렸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 없었다. 그래서 그 증거밖에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데도 안 간 사람이 있다. 누가 안 갔는가? 여자들이 안 갔다. 여자들은 왜 안 갔는가? 여자들은 가야 갈 데가 없다. 그리고 그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처럼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틀렸다하고 간 것이다. 여자들은 예수처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하고 싶었던 자들이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는 여자들만 셋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달아나려고 해도 달아날 수도 없고, 거기 예수와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죽을 때 다 봤고 죽어 있는데도 거기 같이 있었던 것이다. 왜? 자기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다. 여자들이니까.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데 그것은 여자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 여자들은 누구인가? 남자라도 자기도 예수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 있어 보는 것이다. 달아날 필요가 없다. 희망이 없어야 달아날 것인데, 이 사람들은 희망도 뭐도 없다. 그런 생각이 없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그런 간증을 했다. 자기 신랑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달아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갔지 기대가 없는 사람은 가지도 않았다. 남자 중에도 거기 머물러 있던 사람이 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함께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분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그냥 3일 동안, 알고 보면 이틀 동안 거기 있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만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다.

그러면 이틀 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으면 뭘 보았는가? 처음에는 그냥 사람이 죽었구나.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람이면 당연히 죽는 것이라고 봤을 것이다. 그런데 이틀 동안 같이 있다 보면 뭐가 보이는가? 예수 안에 우리가 아직까지 못 봤던 사람이 하나 보인다. 그것이 누구인가? 바로 나다. 거기는 모든 인류가 포함된 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거기 내가 있는 것이다.

나도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다. 그분의 운명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보니 그것이 나라는 말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고전1:30)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다고 하실 때 나는 그 안에 두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갔던 것이다. 버리고 나왔던 것이다. 왜? 뭔가 자기도 해보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머물러 있어 보니까 그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는 그 말에 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내 안에 모시려고 애를 썼는가? 그런데 안 되었다. 열심히 해서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겠다. 나로서는 안 되었다. 아침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어도 저녁에 가면 나는 다른 데를 보다가 왔다.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하루 종일 있겠는가? 그것을 나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었다. 한번은 기도했다 ‘하나님 단 하루만이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하고 기도했는데 안 되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이것은 내 욕심도 아니고 내 자랑도 아닌데 왜 안 들어주시는가? 그런데 들어줄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분이 항상 계실 자리가 없다. 그런데 예수 안에는 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쉬운가.

내 안에 모시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던 분이 딱 드러나니까 내가 그 안에 있더라. 그래서 지금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생각을 전혀 안 한다. 내가 항상 그 안에 있는데, 어디를 따로 떼 어다가 모시겠는가? 예수 안에 한 사람이 있다 거기 내가 있는 사람이다. 만유가 포함된 사람이다. 어떤 것도 자기에게 타고난 운명을 벗어날 길은 없다. 개로 지어졌으면 영원히 개다. 개가 뭘 한다고 소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생명을 넣어놓았다. 그 운명을 넣어놓았다. 그 안에 내가 있다. 자세히 보라. 예수 안에 이틀 동안만 같이 있어보라. 그러면 점점 그것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내가 아닌 내가 그 안에 있다. 내가 몰랐던 내가 그 안에 있다. 신기하지 않은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고전1:30)

그러면 예수는 또 어떻게 되는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구속함)이 되셨으니.”**(고전1:30)라고 한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다는 말과 좀 다른 말이다. 그냥 구속이 됐다는 것이다. 그분 자신이 나의 구속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지혜가 무엇인가?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아는 것이 지혜 아니겠는가. 의로움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의로움이 아닌가. 그것이 의로움이 아닌가. 거룩함이 무엇인가?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것이 거룩이다. 구속이 무엇인가?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구속이다. 그러니까 만사가 다 해결됐다. 그래서 나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불교에서도 그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불교의 과제이다. 그것을 그들은 무, 공, 이런 관념으로 넘어가 버렸다. 실재가 아니고 관념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수 안에 한 자리가 있다. 내가 있는 나를 포함한 만유를 포함한 그 자리가 있다. 나는 당연히 거기에 있다. 내가 일부러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안에 예수를 모시려 하지 않고, 당연하게 있는 자리에 가면 언제든지 내가 있다. 언제든지 거기 가면 있다. 그것만 보면 나는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어느 것이 쉬운가? 내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신다고 애쓰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항상 있는 자리에 가면 보는 것이 쉬운가? 나는 그것이 너무 쉽다. 항상 있는데 힘쓸 것도 애쓸 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비로소 형상으로 지어질 때, 사람일 때, 사람이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할 때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나왔다. 나도 하나님 같이 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버리고 나왔다.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자. 다른 데 가서 나를 찾고, 다른 데 가서 주님을 모시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항상 있는데 왜 찾아가는가?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모시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주님이 계신 자리, 예수가 있는 자리에 항상 내가 같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지혜고 의로움이고 구속함인 것이다.

지혜가 어디 따로 있는가? 그것이 지혜 아닌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던 어디 있는지 모르던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 그것이 지혜이다. 의로움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이다. 그러면 어디가 정상적인 관계인가? 그분이 나를 놔둔 그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 의다. 거룩함이 무엇인가? 구별됐다는 것이다.

구별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구별이다. 구속이 무엇인가? 내가 원 위치로 환원하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힘쓸 필요가 전혀 없다. 바로 거기 있는데 왜 힘을 쓰는가?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언제든지 알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을 보면 되고,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알려면 바로 예수 안에 가면 있다. 내 위치가 뭔가를 알려면 바로 예수를 보면 안다. 그 자리에 바로 있다.

예수와 함께 한 사람은 여자들뿐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자기는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갈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본 것뿐이지 자세히 보면 이틀 동안만 함께 있어 보면 어쩔 수 없이 알게 된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바울도 설명을 안 했기 자기는 함께 죽었다는데, 바울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함께 죽었다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한다. 얼마나 쉬운가? 이것이 널리 퍼져야 만유가 구원이 되고 온 인류가 구원이 되지 안 그러면 무엇으로든지 또 차이가 생긴다. 예수를 모신다고 해도 모시는데서 또 차이가 생긴다.

수녀들이 평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다. 예수를 모시려고 하는데 그것도 등급이 있다. 다 똑같은 수녀가 아니다. 평생 수도원에서 한 번도 나오지 못하는 수녀가 있고, 나와서 사회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각자 틀리다.

어떤 것도 나를 나로 보게 할 수 있는 자리는 예수 안에 밖에 없다. 그래야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와서도 지옥 갈 놈이 있고, 천당 갈 놈이 있으면 되겠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만민이 구원을 받아야 오신다. 계시록을 보면 알지 않는가?

성경을 보면 구원받을 자가 따로 있고, 멸망 받을 자가 따로 있다는 말을 하는 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다. 한쪽은 지옥으로 가고, 한쪽은 천당으로 가면 되겠는가? 다 하나님 지으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다 구원이 되어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되려면 이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모든 사람이 설사 나는 아니라고 해도 할 수 없다. 아니라고 해도 이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복음이라는 말을 감히 썼다. 그런데 왜 마지막 복음이라고 하는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더 이상 만민이 구원 받을 자리가 없다. 아무리 겸손해보라. 더 이상 겸손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내가 사랑이 많아 보라. 내가 있는데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다 괜히 노력만 하는 것이지 다 불가능하다. 해보신 분도 많겠지만 해보시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은 자로 내려갔을 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 우리가 거기서 피하면 갈 데가 없다.

나는 이것이 만민에게 전파되면 예수께서 바로 오신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러기 전에는 예수께서 오셔도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이 다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릴 것이다. 이틀만 머물러 보라.

나도 갔다가 나갔다가 안 되어서 돌아왔다. 나한테 안 되니까 바울의 말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겠더라. 나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롬7:24)이것만 알고 왔다. 나는 안 되어서 온 사람이다. 됐으면 나도 안 온다. 되신 분은 그냥 있어보고, 안 되시는 분은 돌아오라. 돌아와서 예수 죽음에 동참해야 한다. 동참이라기보다 그 죽음을 발견해야 한다. 장사한지 사흘 만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몇 번을 예언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몇 번이나 그렇게 예언했다. 과연 그렇게 된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알고 나서 이보다 쉬운 길이 없는데 누가 이 말을 거부하겠는가하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저항이 많다. 왜 하필 그 말을 해야 하는가? 왜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속기는 단단히 속았구나. 단단히 속은 것이구나. 보통 속아서 이렇게 되겠는가? 이렇게 쉬운 것이 없는데 왜 안 되는가? 함께 있는 것,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다.

하나님 말씀은 점점 더 갈수록 분명해진다.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기 위해서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 같다.

“심령(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저희) 것임이요.”(마5:3)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것 같다. **“심령(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저희) 것임이요.”**

감사합니다.